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33호 【루계 제24646호】 주체103(2014)년 8월 21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부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중장 김정관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1단계 건설이 끝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돌아보시며 이 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본보기육종장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단계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군인건설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명당자리에 특색있게 일떠선 축사들과 아담한 살림집들, 풀판마다에서 구름처럼 떼지어 흐르는 염소, 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한폭의 그림같다고, 한적하던 산골마을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육종연구소, 재배먹이풀품종비교포전, 종축우리, 문화회관, 살림집 등 육종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첨단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육종연구소에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우량품종의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들을 육종해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과학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먹이풀품종비교포전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먹이풀의 경제적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재배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은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보내준 우량품종의 염소마리수를 대대적으로 불구어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과 풀먹는집짐승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하고있다고 평가하시였다.

육종장에 건설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을 산촌의 풍경과 잘 어울리는 색갈의 외벽타일과 지붕재로 마감하니 정말 보기 좋다고, 당에서 바라는대로 환경정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이 현대적이며 세계적인 육종장으로 전변됨으로써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은 우량품종의 풀먹는집짐승육종 및 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고 널리 보급하는데서 중심기지, 거점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육종장에서는 연구사업방향을 바로 정하고 생활력이 강하면서도 증체률이 높은 집짐승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고 널리 퍼뜨리며 여러 단위들에 선진축산기술을 보급하고 과학기술적지도를 할수 있는 체계를 튼튼히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은 필요한 성원들이 이곳에 와서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게 하는 교육기지로서의 사명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풀먹는집짐승기르기에서 사료단위를 낮추기 위한 사업,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 우리 식의 풀판조성 및 재배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사업, 고기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그 가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원림록화를 더 잘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새 집에 입사한 백성진, 윤성희동무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은 볼수록 장관이라고, 그 어느곳을 돌아보아도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군인건설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에 떠받들리워 선군조선의 거창한 창조물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돌아보니 한평생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며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생각에 가슴이 미여진다고, 이런 훌륭한 육종장을 이미전에 건설하여 장군님께 보여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종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풀먹는집짐승을 더 많이 길러내는것으로써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육종장의 종업원들은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일수 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머나먼 곳을 또다시 찾아주시고 대해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망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새로 조업한 갈마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종합조종실, 1차가공실, 랭동진공실, 선별포장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조업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원료보장체계를 바로세우는 문제,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을 짜고드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갈마식료공장을 정말 잘 마감했다고, 공장안은 궁전처럼, 공장밖은 공원같이 꾸렸다고, 볼수록 아담하고 정갈하여 마치 휴양소와 같은 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국국제방송망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전술로케트탄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술로케트탄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혁명무력을 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씨야의 인떼르팍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꼼메르싼뜨》,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인터네트신문 《브즈글랴드. 루》, 인터네트통신들인 로스발뜨, 뉴스루. 콤, 중국의 신화통신, 인민망, 국제방송망, 이란의 프레스TV방송, 라지오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NHK방송, 인디아의 지 뉴스TV방송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3일 로씨야와 중국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돛배형식의 초고층살림집을 바라보시며 나라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호동 5층 1호와 살림집밑단에 꾸려지고있는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자들이 생활상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인재육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게 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록화사업을 비롯한 주변정리를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일을 잘하고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보도망, 환구망, 참고소식망, 중국망, 동북망, 국제방송망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보도망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축물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내부시공도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민망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일과 1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망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민용항공총국과 륙해운성사이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배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면서 누구나 건장한 체력으로 로동과 국방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자면 앞으로도 대중체육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참고소식망, 동북망, 이란신문 《이란 뉴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녀자축구검열경기를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도자께서는 국가종합팀 녀자축구선수들이 집단주의정신과 고상한 경기도덕품성, 완강한 투지를 보여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축구기술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국가종합팀 녀자축구선수들이 앞으로 진행될 국제경기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보도망, 참고소식망, 국제방송망, 동북망,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 강조

세계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네팔공산당(마오바디)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은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선군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해방하기 위하여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가지고 반일유격투쟁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빛을 뿌리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후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며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기 위하여 조선의 현실에 기초한 선군정치를 사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오늘날 조선의 핵보유는 제국주의세력들로 하여금 조선인민의 존엄과 강력한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감히 범접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있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이렇게 격찬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 선군혁명리론은 사회의 단합을 실현하고 경제군사강국건설과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그리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는 보검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 지도부는 물론 국제조직들과 사회정치인사들은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의 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류자주화위업수행을 주도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고있다.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고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업적은 그이의 존함과 더불어 조선과 세계력사에 영원불멸할것이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장장 반세기에 걸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조선의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륭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령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고 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선택당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는 그이의 선군정치를 훌륭히 계승하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자

민심에서 일감을 찾으라

봉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한 지름길은 어디에 있는가. 민심을 틀어쥐는것이다.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아쥐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를 온 나라에 울릴수 있다. 봉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이 그렇게 일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민심을 알기 위한 첫걸음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다.

－예로부터 봉산땅은 길손들에게 밥 한그릇은 대접해도 물 한그릇은 주지 못한 물바른 고장이다.

이것이 군당책임비서 리원준동무가 읍지구의 여러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들은 첫 말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은 물문제해결을 더는 미룰수 없는 일감으로 잡았다. 250여명의 청년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고 서흥호의 물을 산중턱에 끌어올려 려과 및 저장하기 위한 수천㎥의 물탕크 공사를 시작하였다.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강재와 세멘트, 수도관과 양수설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었다.

12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각종 규격의 수도관을 250여㎞나 늘이는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읍지구와 마동, 가촌지구의 8 800여세대의 먹는물문제를 해결한 군당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민심에 기초하여 작전하고 군중을 발동하여 이룩한 첫 성과였다.

군당일군들은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일감들을 계속 찾아나갔다. 훌륭하게 개건보수된 은덕원, 호평받는 국수집, 7동의 건물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공정을 자동흐름식으로 개건한 종이공장…

이 모든것은 민심을 료해하는 과정에 착상하고 일떠세운 소중한 창조물들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에 비추어보면 만족할바가 못되였다.

지난해 12월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깊은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이들은 그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이제는 춥다, 춥다들 하는 겨울이라고, 아이들과 늙은이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고 특히 아이들을 부모잃은 설음을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하겠다고, 이것은 도당책임비서와 도안의 시, 군당책임비서동무들에게 자신께서 직접 주는 과업이라고 한자한자 써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서한,

위대한 어버이의 친필서한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였다.

서둘러 청계리에 자리잡은 학원에 나가 원아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았다. 추운 방안에서 밥을 먹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솜이 얇아진 이불을 만져보며 군당일군들은 끝없이 자책하였다.

(원아들의 겨울나이대책도 변변히 세우지 못한 우리가 어머니당의 당일군자격이 있는가.)

일군들은 자책에만 빠져있지 않았다. 긴급협의회를 소집하고 즉시 대책을 세웠다. 다음날로 많은 량의 땔감과 두툼한 담요를 보내주었으며 불이 잘 안드는 방들은 온돌수리를 지체없이 하여 원아들이 더운 방안에서 지내도록 해주었다.

군당일군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원에 나가 원아들을 만나보면서 제기되는것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사실 건설한지 오래된 학원의 호실들과 세면장, 위생실, 식당조건은 응당한 수준에 있지 못하였다. 물이 긴장한것이 제일 문제였다.

올해 이른봄철에 들어서면서 군당위원회는 학원물보장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학원전용물탕크를 만들고 800여m의 수도관을 늘여 물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학원내외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하였다. 군급기관 일군들이 총동원되였다.

군당위원회 부부장 강명철, 과장 김상호동무들은 학원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공사지휘를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제일 힘든 대상들을 맡아 공사를 남먼저 끝냈다. 수십개 호실들과 세면장, 위생실은 물론이고 취사장과 식사실, 울타리 등 학원의 내외부가 한달동안에 완전히 일신되였다.

기뻐하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며 군당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후대사랑과 군중속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의 참뜻을 뼈에 사무치게 새기였다.

민심을 통해 설계한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해내는것은 이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흥수도자기생산협동조합 개건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구연유치원을 옮겨짓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도자기생산협동조합과 군원료기지사업소 2개 작업반 종업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건설은 조합개건확장공사의 성과적추진을 위한 선결고리였다.

그런데 유치원건설을 분담받은 일군들이 조건타발을 하면서 늦잡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은 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자신을 질책하였다.

지난 7월 중순 군당위원회 어느 한 부서일군들에게 이 과업이 맡겨졌다. 건물공사를 8월 15일까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공사장으로 군당일군들은 누구나 달려나와 구슬땀을 바치였다. 뜻깊은 8월 15일 밤 층막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민심에서 일감을 찾으며 완강하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헌신적인 사업기풍은 더 큰 성과를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정답게, 뜨겁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이 땅의 일터와 가정, 그 어디서나 절절하게 울려퍼지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이다.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정다워
그곁에 있어도 멀리에 있다 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정다워

믿음에 넘쳐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가슴에 새길수록 아 뜨거워
새벽길 걸어도 밤길을 걸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뜨거워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승일동무는 말하였다.

《노래의 뜻깊은 구절들을 새겨볼수록 어머니당의 당일군된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대오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전당의 당일군들이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를 남달리 사랑하고 노래에 자신들의 사업을 비추어보며 날과 날을 불같은 헌신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위대한 스승의 간곡한 당부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은 어머니가 아들딸들을 따뜻이 돌보듯이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너그럽고 아량있게 대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추억도 깊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뜨겁게 적시여준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라는 인상깊은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포비서들이라고 하시던 그 말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실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전당강화의 첫 고리로 몸소 소집하신 력사적인 대회에서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전당의 세포비서들뿐아니라 온 나라 당일군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어머니당의 당일군들의 삶과 투쟁의 가장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정답게! 뜨겁게!

노래의 구절에 맥박치는 이 사상은 당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야 할 당일군들의 사업과정은 실무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나깨나 노래의 이 요구를 깊이 새기며 실천에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에 진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누구나 스스로 찾아와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싶어할 정도로 당일군들은 심장이 뜨겁고 도량이 넓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주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참답게 빛내여주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꽉 차있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불사신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

청원과 보증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공무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 입당청원,

흔히 사람들은 불같은 토로나 뜨거운 글줄로써 그 소망을 터놓는다. 그러나 당원의 영예를 지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선뜻 터놓을수 없는 안타까움에 모대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마음속고충을 헤아려보고 풀어주어야 할 당일군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운것인가.

우리가 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된것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공무직장 초급당비서 리춘섭동무는 줄곧 한곳에 눈길을 박은채 서있었다.

작업모를 푹 눌러쓰고 직심스레 기대를 돌리는 자그마한 체격의 선반공, 그는 가공2작업반 반장 전수병동무였다.

숙련된 솜씨로 예민한 눈금을 어렵지 않게 조절하는 그의 손은 그대로 기계의 한부분인듯싶었다. 그러나 시선은 쇠밥이 불꽃을 튕기며 쉼없이 솟구쳐오르는 바이트날끝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있었다. 성실한 그 모습을 바라볼수록 초급당비서의 마음은 천근으로 무거워졌다. 직장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고급기능공이고 작업반장이지만 여직 당대렬에 들어서지 못한 그를 볼 때마다 느끼군 하는 감정이였다.

전수병동무의 문제를 놓고 초급당비서는 가공2작업반 당세포비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니 반장동무가 스스로 입당청원을 미루고있단 말이지.》

이렇게 혼자말처럼 조용히 되이는 초급당비서의 안색은 진중하였다. 나라앞에 죄를 지은 아버지의 몫까지 합쳐 남들의 열배, 백배로 일하기 전에는 당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마음속차단봉을 내리는 전수병동무의 진정이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후 초급당일군은 전수병동무에게 더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본인과의 담화도 진지하게 하고 가정방문도 하면서 그가 계속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떠밀어주었다.

그러던 지난해 6월이였다.

발전기주려자기회전자축을 연마해야 할 긴급과제가 나섰다. 전문기계공장에 주문하지 않고서는 별도리가 없다고 다들 난감해하였다. 이때 전수병동무가 나섰다. 자기가 한번 가공해보겠다는것이였다.

그날부터 그는 밤잠을 잊었다. 입술이 부르트고 눈에 피발이 섰지만 순간도 기대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 헌신적인 모습을 대하는 초급당비서의 가슴에는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것은 실천으로써 입당을 열렬히 청원하는 한 인간의 뜨거운 심장의 고백이였다.

드디여 발전기주려자기회전자축가공을 성과적으로 끝낸 그날 초급당비서는 전수병동무와 마주앉았다.

《반장동무가 나라를 위해 해놓은 많은 일이 그대로 심장의 토로라고 생각하오. 난 동무를 믿소.》

《비서동지, 정말 나같은 사람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질수 있습니까?》

심각한 물음이였다.

책임, 그것은 불과 한마디 말이였지만 그 인간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생을 변함없이 살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선뜻 질수 없는것이였다. 초급당비서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난 동무를 당앞에 전적으로 보증합니다.》

* *

《말 못하는 이 아들의 고충을 당조직은 속속들이 헤아리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수병동무의 눈굽은 젖어있었다.

그를 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청원과 보증, 얼마나 많은 뜻이 어려있는 말인가.

불같은 헌신에서 절절한 입당청원의 목소리를 들을줄 아는 일군, 남모르는 피로움을 안고있는 사람들의 운명도 끝까지 책임질 각오를 안고 보증이라는 시점에 자신을 스스럼없이 세울줄 아는 일군이 바로 어머니당이 바라는 진짜배기당일군이라는 시대의 메아리가 거기에 뜨겁게 실려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귀속말

송원군 신양리당위원회 일군들

늘 군중과 한데 어울려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는 소탈한 품성과 함께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일군들은 군중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마련이다. 송원군 신양리당위원회 일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일군은 인정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취재길에서 목격한 일이 눈에 선하다.

리당비서사무실문은 열려져있었다.

《정말…고맙습니다. …》

안에서 울려나오는 한 녀성의 목소리, 분명 눈물을 머금고있었다.

《고맙긴. 비물이 새지 않는다니 됐구만. …》

잠시후 사무실에 들어가보니 방금전 그 정다운 목소리의 임자는 바로 리당비서 최재룡동무였다. 그와 초면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는 찰나에 나이지숙한 한 농장원이 사무실에 들어섰다. 먼길을 달려온듯 얼굴이 상기된 그는 곁에 우리가 있는것도 잊은듯 무작정 리당비서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됐습니다! 비서동지. 됐단 말입니다!…》

얼굴에 희색을 띠우며 일어서던 리당일군은 우리를 바라보며 량해를 구하였다. 그제서야 자기를 다잡은 농장원은 손을 오그리고 리당일군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그래? 잘됐소. 끝내 완쾌됐단 말이지!…》

리당일군은 기쁜 나머지 농장원과 이마를 맞대고 어쩔줄 몰라하였다. 눈굽에 손을 가져가기도 하며.

평범한 농장원과 리당일군사이에 펼쳐진 그 광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였다. 취재를 심화하면서 료해하여보니 확실히 리당비서 최재룡동무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당일군이라고 하여 틀을 차리지 않고 언제나 군중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군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다하는 훌륭한 풍모였다.

평범한 농장원이 한 귀속말, 여기에는 대중앞에 자기를 무한히 낮추며 언제나 대중과 한덩어리로 어울려 생활하는것을 당일군의 뗄수 없는 사업기풍과 풍모로 여기는 리당일군의 옳바른 군중관, 참다운 인격이 놓여있다.

그러니 농장원들은 마치 어머니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서듯 그의 사무실을 찾아와 마음속고충과 진정을 스스럼없이 터놓는것이다. 그속에서 집단의 위력은 더 커지고 농장의 전반사업에서는 보다 큰 혁신이 이룩되는것이다.

귀속말, 당일군이라면 누구나 깊이 새겨야 한다. 자기가 군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귀속말을 들으며 사업하고있는가를.

본사기자 장철범

《성강의 파도》를 가슴에 새겨주며

쉴참의 정치사업이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1조강직장 초급당비서 고용일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로동자들은 왜 그토록 커다란 격정과 희열, 행복감에 넘쳐있는가.

초급당일군은 뜨거운 추억을 펼쳐주고있다.

성강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으시고 나라의 강철공업을 떠받드는데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끝없이 질풍노도치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내려보내주신 조선화《성강의 파도》,

그 미술작품에 어린 절세위인의 믿음에 혁신과 위훈으로 대답해온 나날을 참으로 긍지높이 더듬어보게 하는 당일군의 정치사업이다.

먼 후날에도 떳떳이 추억할 위훈의 자욱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초급당일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가득 어려있다.

령도자의 믿음에 오직 드높은 실천으로 화답하도록 걸음걸음 떠밀어준 초급당일군,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부터 생각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가 걸은 헌신의 길은 과연 얼마이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가자고 사랑과 정, 믿음을 담아 하는 그의 한마디한마디는 모두의 심장을 쇠물처럼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미국은 역겹고도 유치한 가면극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사람들은 굶주린 승냥이라면 뭇짐승들을 유혹하여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양가죽을 뒤집어쓰고 어진 흉내를 내였다는 고대우화에 대해 생각할것이다.

미국무장관 케리가 신통히도 이 고대우화의 승냥이처럼 놀아대여 세상사람들을 웃기고있다.

케리의 외형을 보면 흉물스러운 주걱턱과 움푹 꺼진 눈확, 푸시시한 재빛머리털에 이르기까지 그 생김새가 신통히도 승냥이상통인데다 하는 짓거리도 전부 남을 물어뜯고 해치는것뿐이다.

미행정부의 대외침략정책실현의 돌격대인 케리의 입이 열리면 승냥이의 울음소리를 방불케 하는 사나운 악담과 험담이 쏟아져나오고 발길이 닿는 곳에서는 동란과 분쟁이 일어나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있다.

그래서 케리는 올데갈데 없는 미국산승냥이로 락인된지 오래다.

그러한 케리가 별안간 여기저기서 선량한 양의 흉내를 내여 사람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하였다.

지난 8월 13일이였다.

케리는 느닷없이 그 무슨 《축하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내용인즉 오바마대통령과 미국민을 대표하여 《광복절》을 맞는 조선민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것이였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8월 15일은 일제강점 40여년의 수난사에 종지부를 찍은 력사의 날이면서 미제침략자들에 의한 남조선강점과 민족분렬의 수치와 비극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수치와 비극의 장장 70년을 이어오는 우리 민족을 《축하》한다니 그보다 더한 우롱과 모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민족의 격노한 감정에는 아랑곳없이 케리는 이번에는 미국 하와이대학의 한 토론회에 머리를 내밀고 철면피하게 미국이 악화된 조미관계를 《완화시킬 의향》이 있다고 하여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고싶어 죽을 지경인것처럼 요사를 떨어대고 나중에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있다면 조미관계의 개선인것처럼 청을 돋구어댔다.

케리의 갑작스러운 감언리설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케리의 행태가 마치 포악한 승냥이가 어진 양으로 변신한것이나 다름없었기때문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새로운 대조선압살과 제재를 고안해내다 못해 핵전쟁살인장비를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핵선제공격연습을 강행하고있다.

그러한 침략자들이 갑자기 《평화수호》의 면사포를 쓰고 감람나무가지를 내흔들어대며 더러운 본심을 숨기고있는것이다.

승냥이의 양울음소리는 남을 해치기 위한 불순한 흉심에서이다.

사람들은 미국의 본색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책에 씌여져있는 리론이나 그 누구의 설명이 아닌 펼쳐진 눈앞의 현실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아니나다를가 케리는 드디여 악청을 다시 터치기 시작했다.

《북조선의 핵과 탄도미싸일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초월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가장 엄중한 위협과 도발로 된다.》, 《북조선의 인권유린상황이 더이상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아시아에서 방어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미국은 북조선이 대결을 선택할 때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 등은 케리가 직접 내뱉은 망발이다.

불과 사흘안팎에 미국본토와 아시아나라들을 돌아치며 《초대국》의 외교수장은커녕 인간의 초보적인 체면이나 례의조차 다 줴버리고 양과 승냥이라는 1인2역의 가면극을 펼쳐놓은 케리의 행태는 갖은 권모술수로 인류를 기만우롱해온 미국의 체질적인 위선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낸것으로 된다.

사실 케리의 이러한 이중적몰골은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케리는 목이 쉴 정도로 《대조선불가침》타령을 한바탕 늘어놓고는 돌아앉기 바쁘게 우리에 대한 천만부당한 국제적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고 조선반도에 미제침략군의 핵타격수단들을 들이밀어 핵위협과 공갈을 들이대게 한 장본인이다.

미국이야말로 강권과 전횡, 침략과 전쟁, 략탈과 간섭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인류평화의 암적존재, 인권유린의 주범이다.

미국이 감히 평화에 대해, 신성한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그러면 미국이 무엇때문에 철부지아이들조차 역겹게 여길 이따위 유치한 가면극에 매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젊음에 넘쳐 세기를 주름잡아 폭풍쳐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은 온 세계를 경탄케 하고있다.

이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총파산을 선고한 일대패거로 된다.

오죽하면 미정계에서까지 《전략적인내》로 통칭되는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침략정책이 《북을 체제강화》와 《핵보유》에로 떠민 《철저히 완패한 정책》으로 되였다는 혹평이 련일 쏟아져나오고있겠는가.

우리에게 정면으로 덤벼들자니 선군으로 다져진 무자비한 보복철퇴가 두렵고 그렇다고 패자의 비명을 올리며 현실을 그대로 묵묵감수할수도 없는것이 바로 미국이 처한 진퇴량난의 현 처지이다.

그래서 벌려놓는것이 승냥이가 마치 날고기가 아닌 풀을 뜯는것처럼 묘사해대는 유치한 가면극인것이다.

미국의 가긍한 몰골은 한때 침략과 전쟁으로 강성을 탐내다가 조락되여 력사의 락엽속에 영원히 묻혀버린 옛 로마제국을 련상케 하고있다.

암운이 드리운 미국은 갈팡질팡하고있다.

미국에 다시한번 충고하건대 백년천년이 가도 실현될리 만무한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매달려 가뜩이나 쇠진해진 마지막기력까지 소모해대지 말아야 한다.

안팎으로 붕괴되고있는 대내외정책과 온갖 사회악의 아수라장으로 화한 자국에 대한 구급소생대책이나 세우고 미국내의 감옥들을 채우고도 모자라 멀리 동방에서까지 족쇄를 차고 옥살이를 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신경을 쓰는것이 더 급선무일것이다.

사람들은 피묻은 이발을 드러낸 승냥이보다 양의 웃음을 띠고 접어드는 승냥이가 더 위험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역겹고도 유치한 가면극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주체103(2014)년 8월 20일
평 양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우고

회령식료가공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현지지도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는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인 회령식료가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식료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부쩍 늘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여러가지 식료품을 공업적방법으로 제때에 가공하며 맛있고 영양가가 높으며 깨끗하고 먹기 편리한 식료가공품을 값눅게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조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배인 리명옥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에로 기술자,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그 어느 작업반이나 할것없이 대중의 앙양된 열의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맥주작업반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보리길금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아 많은 자금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리동철, 류철진동무를 비롯한 이곳 작업반원들은 시민들의 호평을 받을수 있게 생산물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창조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생산정상화와 함께 생산물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리명옥동무를 비롯하여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바친 날과 달,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국수작업반에서도 강냉이국수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원료의 특성에 맞게 국수가공공정에 따르는 설비의 가동속도와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프로그람을 개발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국수발의 윤기와 질김도가 보장되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이룩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신명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들은 생산에서 질과 량을 다같이 보장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내세우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려 같은 량의 전기를 쓰면서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국수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 수요가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유훈을 받들고 질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회령식료가공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비상한 일욕심과 높은 기술혁신열의는 더 많은 생산성과를 가져올것이다.

지혁철

철령아래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되는 고산과수농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618건설돌격대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철령아래 고산땅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단 한해동안에 수십정보씩의 토지정리와 과수원보수, 근 30만대의 콩크리트지지대생산 및 세우기, 260여정보의 과일나무심기 진행, 연 수십리구간의 도로포장, 착공하여 50여일동안에 쇠그물울타리공장건설을 완공하고 생산에 진입…

이 눈부신 기적을 창조한 비결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간데 있다.

지난 7월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이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한다고,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서 돌격대가 발휘하고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맨손으로 뜨락또르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정책관철에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대중을 불러일으켜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은 이곳 현장지휘부일군들의 체질화된 사업기풍이며 일본새이다.

쇠그물울타리공장을 건설할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공장을 자체로 건설할것을 대담하게 발기해나섰다. 사실 그들에게는 현대적인 공장건설경험도 없었고 작업공구로부터 시작하여 중요설비와 자재가 있는것보다 부족한것이 더 많았다. 우에 제기하여 현대적인 중요설비들을 보장받자는 의견들도 제기되였다. 하지만 현장지휘부 정치일군의 생각은 달랐다. 말겨진 과제가 어렵고 방대하다고 하여 우에 손을 내민다면 지난 시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관철에서 불가능을 몰랐던 백두산건설부대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었던것이다.

《쇠그물울타리공장건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전투과업입니다. 크나큰 그 믿음을 심장에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할 때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백두산건설부대의 전통을 빛내이며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우리의 힘으로 공장건설을 당앞에 맹세한 날자까지 무조건 끝냅시다.》

낮으나 절절하게 울리는 그의 말은 모든 일군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저저마다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공장을 일떠세울것을 결의해나섰다.

현장지휘부 참모장 조용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앞채를 메고 나섰다. 이들은 필요한 설비들을 앞질러 확보해나가면서 자체의 생산기지들에 나가 세멘트와 강재를 지체없이 보장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그리고 시공지도에 품을 넣으면서 려단별로 작업공구 확보와 블로크생산, 록화준비를 다그치도록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정치일군들도 방송선전차, 포전방송기재, 직관선전물들을 전투장에 집중시키고 사상공세를 들이대였다. 그리고 백두밀림의 병기창에서 울려퍼지던 자력갱생의 마치소리가 철령아래의 고산땅에서도 계속 힘있게 울려퍼지게 하자는 호소성이 강한 방송선동과 직관선전을 격식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기동예술선동대활동도 벌려나갔다. 이런 정치사업은 건설의 모든 공정들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되였다.

대중의 열의가 앙양되고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수록 공사실적은 나날이 올랐다. 모든 작업을 기계화하고 기능공들로 력량을 새로 편성하여 공사를 다그치니 그 질도 철저히 보장되였다. 그리하여 50여일동안에 1만 2천여㎥의 부지를 정리하여 5천여㎡의 건축면적에 여러동의 생산 및 보조건물들을 건설하여 설비조립을 하고 수천㎥의 공장구내포장과 잔디와 나무, 꽃관목심기 및 지대정리까지 동시에 끝낸 조건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였다.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무슨 일이나 제힘으로 해제껴 맡겨진 공사과제를 중단없이 수행한것도 본받을만 한것이다.

콩크리트지지대생산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아직 수십만대의 지지대를 더 생산해야 계획된 공사과제를 결속하겠는데 필요한 규격의 환강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여 생산을 중단해야 할 난관이 조성되였다. 이때에도 일군들은 물러서지 않고 환강을 자체로 해결할것을 결심하였다.

당이 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기적이 창조된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에 내려가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울리였다. 일군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소왕청과 처창즈의 결사항전정신이 평범한 나날에 나온것이 아니며 천리마의 전설과 속도전의 기적,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서 태여난것이 아니라고 한 당의 뜻을 깊이 새겨주면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방도를 모색하였다. 결과 압연롤을 개조하고 지지대생산에 필요한 환강을 생산하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신심을 가진 일군들은 환강생산에 필요한 파철을 직접 책임지고 지장없이 보장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자체의 힘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맡겨진 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것도 혁신적이다.

도로건설의 질을 철저히 담보해나간 사실 하나만을 놓고보자. 일군들은 질보장의 방도를 깬돌생산과 선별로부터 시작하여 혼합, 다지기 등의 모든 작업을 기계화하는데서 찾았다. 그러자면 각 려단들에서 파쇄기, 골재선별기, 각종 다짐기 등의 설비들을 모두 갖추어놓아야 하였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이때에도 일군들은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려단들에 내려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웠다.

그리하여 황해북도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도와의 련계밑에 각종 설비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함경남도려단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평진동다짐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즉시 현지에서의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그 경험을 모든 단위들에서 본받아 도로건설에 필요한 설비생산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려단들에서 대대와 돌격대원별로 각종 공구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결과 모든 단위들에서는 한달동안에 15종의 각종 공구들과 함께 필요한 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도로포장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당정책관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면 반드시 승리한다. 바로 이것이 현장지휘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지난 한해동안 투쟁해온 나날에 심장에 새긴 귀중한 진리이다.

천세만세 길이 전해갈 불멸의 자욱

끝없는 충정의 세계

지난 7월,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시여 농장에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1947년에 창설된 고산과수농장이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세계굴지의 청춘과원으로 일신된 농장력사의 첫페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였다고, 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무릉도원으로 꾸리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으로써 농장력사의 갈피갈피를 세세년년 빛나게 기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고산과수농장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수농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정력적인 사색과 불같은 열정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력사가 이 땅에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충정의 세계에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몸소 발기하신 정보당 생산량경쟁

흐뭇한 사과작황이 펼쳐진 과수원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그루에 사과가 몇알 달리고 알당 무게는 얼마인가를 물어보시였다. 그러시고 지력을 높이고 과일나무영양관리를 잘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과수농장들사이에 정보당 생산량을 가지고 경쟁하며 여기서 고산과수농장이 뒤지면 안된다는 뜻깊은 믿음의 말씀을 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눈앞에는 정보당 생산량경쟁열풍속에 과일과도가 세차게 이는 새로운 풍치가 환희롭게 안겨왔다.

명백한 해명을 주신 종자문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재배하고있는 사과품종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품종들마다 우단점이 다 있고 과수농장들의 지대적특성과 기후조건이 서로 달라 어느 한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할수 없는것만큼 옳바른 품종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기 고장의 기후풍토에 순화시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가물과 추위, 병해충견딜성이 강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것을 기본품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저도모르게 탄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자문제에 가장 명백한 해명을 주시여 나라의 과일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담보를 찾아주신것이였다.

사과밭속으로 앞서 걸으신 사연

지난해 보아주시였던 키낮은사과나무앞에서 동행한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가 만류할 사이도 없이 사과밭속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시였다. 삼복철이라 과수원의 땅걸면은 몹시 말라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앞장서 걸으시는것이였다.

한걸음, 열걸음, 또 열걸음… 드디여 수십걸음만에야 멈추어서신 그이께서는 포전도로에서 어지간히 떨어진 그곳의 사과나무들에도 많은 열매들이 주렁진 광경을 보시며 진짜 사과밭같은 과수원에 들어온것 같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면서 일군들은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실태료해를 번듯한 포장도로를 따라가면서 유람식으로, 형식주의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갈것을 바라시는 그이의 그 깊으신 의도를.

과수에서 기어이 세계적인 패권을

고산과수농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수행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영광의 그날에 받아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은 고산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을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고수확년도에 비하여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4배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것, 이것이 농장이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과일생산목표였다.

헐치 않은 과제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쳤다.

시련과 난관은 있을지언정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과수에서 기어이 세계적인 패권을 쥐자.

온 농장이 이런 각오로 부글부글 끓었고 그 어디를 가보아도 결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농장일군들부터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은 문제없다는 자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분발해나섰다.

이들은 단계별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수행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해결해나갔다.

이와 함께 모든 단위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갔다.

일군들이 과수원들에 대한 5차의 토양관리와 키낮은사과나무들의 여름철가지자르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을 때 기술일군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농장의 과일생산을 과학적으로 담보해나갔다. 그들은 살균효과가 높은 농약을 자체로 생산하여 실천에 도입하였다.

또한 해당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살충효과가 큰 농약생산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그 원가를 훨씬 줄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농장의 근로자들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과일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일해나갔다.

과일나무비배관리로 드바쁜 속에서도 한달동안에 300여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남먼저 생산한 직속 제4작업반과 여러가지 식물성농약생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간 성북, 량사분장의 근로자들, 여름철 과일나무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있는 직속 제2, 3, 4, 11, 12, 13, 14작업반원들…

농장이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자면 해놓은 일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래일을 내다보며 승리를 확신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다는것을 심장에 새기였기에.

진짜 쓸모있는 공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쇠그물울타리공장을 찾으시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짧은 기간에 공장을 깨끗하게 잘 지었다고, 진짜 쓸모있는 공장을 지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산과수농장에서 경영관리를 잘하자면 쇠그물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공장은 공원속의 궁전처럼 건설되였다.

공장전경을 내려다보면 궁륭식철판지붕을 씌운 여러동의 생산건물들이 들어앉은 모습이 한껏 펼친 락하산을 련상하게 한다.

선 편리성, 선 미학성과 선 하부구조, 후 상부구조건설원칙을 엄격히 지켜 건설한 건축물들은 어느 한 구석도 흠잡을데가 없다.

그리고 지붕재와 어울리게 벽체마다 여러가지 색으로 외장재를 바른 생산건물들은 볼수록 시원하고 산뜻한 느낌을 준다.

구내바닥을 반듯하게 포장하고 록색건축에로 나가는 발전추세에 맞게 모든 건물들의 둘레와 공장구역에 친 쇠그물울타리전구간에는 일정한 너비로 록지가 조성되였다.

그리고 정문앞에는 수십㎡의 록지를 조성하고 여러 수종의 꽃관목들을, 공장주변에는 키높이 자란 나무들을 병풍처럼 둘러가며 심었다.

그뿐이 아니다. 모든 생산건물안은 어디 가나 깨끗하고 환하게 꾸려졌다.

공장은 흐름식생산공정을 갖춘 진짜 쓸모있는 생산기지이다.

생산건물들에는 원료창고와 연신장, 쇠그물장, 제관용접장, 형강생산장, 수지도포장과 제품창고가 있다.

연신장에서는 대형연신기로 6.5~8mm 환강을 4mm까지, 중형연신기로 그것을 1.5~2mm까지 연신하여 철선을 뽑으며 쇠그물울타리를 고착하는데 쓸 나사들도 생산한다. 쇠그물장에서는 각종 설비들을 갖추고 철선으로 격자형쇠그물을 만든다.

그리고 연신하여 수지도포를 한 철선을 엮는 방법으로 라선형쇠그물을 생산한다.

또한 0.45mm의 두께를 가진 띠철로 가시철편을 찍어내고 그것을 연신된 쇠줄에 감싸 직선형가시철선과 타래형가시철선도 생산한다.

형강생산장에서는 띠강판으로 여러 규격과 형태의 형강을 생산하여 제관용접장에 보낸다. 그러면 그것을 절단하여 울타리기둥과 울타리를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부분품들을 만들어 틀이 있거나 없는 격자형의 쇠그물울타리를 제작한다.

수지도포장에서는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세척하고 수지로 도포하여 완제품으로 만든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어디서나 여러가지로 리용된다. 과수원둘레에 울타리를 칠 때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거나 비탈진 곳에는 직선형과 타래형가시철선을, 기본도로와 간선도로주변을 비롯한 평지에는 라선형, 격자형으로 된 쇠그물울타리를 쓴다.

또한 쇠그물울타리는 공원과 유원지, 정구장 등 체육시설과 생산건물, 생활건물울타리로도 쓸수 있고 축구꼴문에도 칠수 있다.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쇠그물울타리와 가시철선을 생산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 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선군절경축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4돐을 맞으며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평양시의 여러 경기장들에서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사격, 태권도, 수류탄던지기, 400m장애물극복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개막모임이 20일 청춘거리롱구경기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직맹일군들, 직맹원들, 각 도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개막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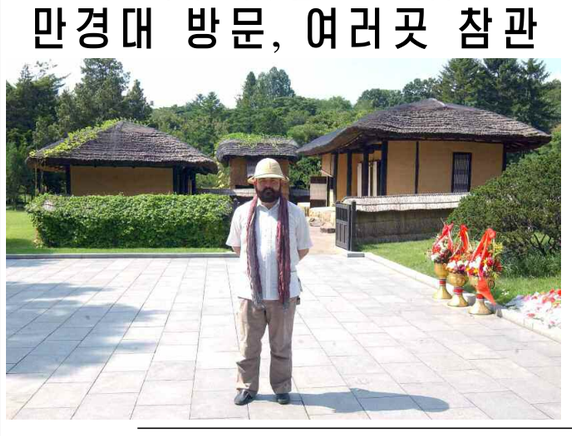
모든 선수들은 경기마다에서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나날에 다져온 건강한 체력과 완강한 투지, 높은 체육기술,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기참가자들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선군절을 보다 의의깊게 경축하며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에스빠냐 백두산소조 책임자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마누엘 가르씨아 보따야 에스빠냐 백두산소조 책임자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고향집의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는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이밖에 그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김만유병원 등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우리 제도가 제일입니다

지난해 9월 어느날, 저는 갑자기 심한 아픔으로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의 남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마식령스키장건설현장에 나가있었고 두 자식은 군사복무중이여서 집에는 저 혼자뿐이였습니다.

며칠전부터 얼굴빛이 좋지 않다고 걱정해주던 옆집에서 우연히 우리 집에 들렸다가 쓰러져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달음으로 단천마그네샤공장병원으로 업고갔습니다.

제가 의식을 차린 후 알게 된 일이지만 병원의 서주일, 손옥향동무들을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이 저의 소생을 위한 전투를 긴장하게 벌렸다고 합니다.

제가 두 자식을 인민군대에 내보낸 후방가족이라고 하면서 온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떨쳐나 치료를 성의껏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기울인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자면 끝이 없습니다.

입원생활 전기간 저는 뜨거운 그 진정에 베개잇을 눈물로 적시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정은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퇴원한 후에도 자주 집에 찾아와 검진을 해주고있으며 명절때마다 여러가지 보약들을 가지고와 우리 군인가정이 건강한 몸으로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나가도록 고무해주고있습니다.

이번에 체험한 감동깊은 사실을 통하여 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또다시 심장깊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이지 모두가 친혈육이 되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제도가 제일입니다!

함경남도 단천시 해안2동 38인민반 김성희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

전적으로 책임진 립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앉아서 나라일을 걱정이나 하는 우국지사가 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여 조국을 받드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시작과 함께 국가자원개발성의 책임일군들이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 있다.

—지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졌다는 립장에 서자. 그래야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자기 집일처럼 도와나설수 있다.

이런 마음을 안고 그들은 아무리 사업이 긴장해도 현장에 자주 나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해결해주군 하였다.

일군들은 땅다루기가 한창일 때에는 필요한 륜전기재들을 지장없이 보장해주었고 많은 량의 소석회와 먹이풀씨도 제때에 마련해주어 돌격대원들이 풀판조성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였다.

풀판조성에 이어 4동의 살림집과 집짐승우리를 건설할데 대한 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책임일군은 성에 돌아온 즉시 해당 일군들의 협의회를 연 다음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섰다.

제일 힘든 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책임일군들의 모습은 성안의 모든 일군들을 분발시켰다.

—우리모두가 주인된 립장에서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설 때 완공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이런 각오를 안고 성의 일군들은 품을 들여가며 세멘트와 목재를 비롯한 많은 량의 자재를 하나하나 마련해나갔다.

그리하여 돌격대에서는 180여t의 세멘트, 16t의 철근, 150㎥의 목재를 비롯한 자재가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할수 있게 되였다.

성에서는 시공을 전적으로 맡아 수행할 40여명의 기능공들과 20여명의 보조공들을 보내주어 공사속도와 질이 철저히 보장될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보온재, 각종 규격의 비닐관과 쇠관, 수백㎥의 타일, 쇠그물, 수천장의 기와 등의 자재들도 제때에 현장에 도착시켜 외부공사가 끝나는 즉시 내부공사에 진입할수 있게 하였다.

성일군들의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있어 돌격대는 이천군사단적으로 맡겨진 건축물공사과제수행에서 앞장선 단위들중의 하나로 되였다.

본사기자

당의 군사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우리의 행복도 미래도 있다

선군의 한길을 따라 이 땅에 행복이 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선군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요즘 불밝은 수도의 거리를 거닐 때마다 불쑥 나는 생각이 있다.

집집의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 랑랑한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혁신과 창조로 들끓던 일터에서의 하루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희망찬 래일을 설계하기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한껏 느끼는 아름다운 우리 생활, 그 행복넘친 생활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것일가?

문득 우리의 눈앞에 조국땅 방방곡곡에 펼쳐진 창조물들이 다가온다.

문수물놀이장이며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곳곳에 꾸려진 공원들과 로라스케트장…

그 이름 불러보면 금시라도 아이들의 유쾌한 웃음소리, 인민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얼마전 휴식일 아침이였다.

《문수물놀이장에 가자요.》

《미림승마구락부에 가서 말부터 타보자요.》

서로 팔을 잡아끌며 응석을 부리는 자식들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라 그저 웃기만 하고 선 녀인, 어데부터 먼저 갈가?

곳곳에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휴식일의 하루를 기쁘게 보내자던 계획이 아침부터 《난관》에 부닥쳤던것이다.

어찌 이 한가정뿐인가.

오늘은 마음먹고 아침부터 통일거리운동쎈터에도 가고 릉라곱등어관에도 가겠다며 일찍 집문을 나섰다는 로인내외, 뽈을 척 안은 어린 자식을 앞세우고 공원으로 향한 녀인, 온 가족을 이끌고 릉라물놀이장으로 간다는 중년의 남성…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 인민의 행복넘친 문화정서생활기지가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이 모든 행복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로고를 바치시며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총대를 높이 추켜드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주시며 선군의 한길을 굳건히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낮에도 밤에도 병사들을 찾아가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이 있어 인민은 오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한목소리로 노래부른다.

행복이 오는 길을 우리는 알아
봄날이 오는 길을 우리는 알아
선군의 한길을 따라 이 땅에 행복이 오네
승리의 언덕에 올라 걸어온 자욱을 보니
장군님 폭풍만리 헤쳐가신 선군의 길로
아 우리 행복이 오네 우리 행복이 오네
…

인민의 행복이 마련되고 아름답게 가꿔지는 그 선군길을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고 계신다.

선군절이 다가올수록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낮과 밤, 끝없이 이어가신 전선시찰의 길을 가슴뜨겁게 안아보는 우리 인민이다.

지금은 어데 계실가, 그 어데 먼길 가실가라고 절절히 아뢰이며 원수님 가시는 전선길에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마음도 따라세운다.

삼복의 무더위에 인민들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한껏 누리도록 해주시고 자신께서는 한여름의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인민의 안녕을 위해 이 한밤도 전선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릉라인민유원지의 웃음꽃도, 미림승마구락부의 말발굽소리도, 마식령스키장의 스키바람도 바로 우리 원수님 헤쳐가시는 선군의 길에서 마련되고 가꾸어진 행복이 아니던가.

인민들이 살 집도, 그들이 정서생활을 꽃피울 문화정서생활기지도, 아이들의 야영소도 인민군대가 맡아 훌륭히 꾸려주도록 해주시고 인민군대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며 선군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강성국가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면서도 최고사령부작전대우에 전국의 부모잃은 아이들에 대한 자료를 언제나 놓고 계시며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육아원과 애육원원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그들을 대성산종합병원에서 보양시킬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신것도 전선시찰의 길에서였다.

사랑의 첫물복숭아를 실은 화물자동차가 수도의 거리를 달릴 때에도, 은정어린 물고기를 어서 타가라고 봉사자들이 집집의 문을 두드릴 때에도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생각으로 눈굽적시였고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갈 철석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은것이다.

선군과 우리 행복,
선군과 우리 생활,
정녕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선군이 있어 우리의 행복이 있고 흥하는 생활이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헤쳐오신 선군의 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선군길에서 펼쳐지고 가꾸어진 선경을 선군선경이라 부르며 노래하고 있다.

장자강의 불야경,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한드레벌의 지평선, 범안리의 선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류다른 콩풍경, 미곡벌의 가을풍경…

정녕 그것은 절세위인들께서 선군의 길에서 씨앗을 묻으시고 가꾸어주신 인민의 행복의 열매이며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참모습이다.

선군과 잇닿은 우리 생활, 우리 행복!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선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의 생활속에, 우리 인민의 행복과 더불어 이 땅우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영웅의 금별메달은 무엇을 새겨주는가

중구역 리철민고급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보위사업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입니다.》

금별메달이 빛나고있다.

기적소리 울리는 렬차에 몸을 싣고 초소로 떠나던 날 리철민영웅도 맹세다졌으리라. 부모들앞에, 동무들앞에, 스승들앞에.

조국을 지키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그 맹세를 안고 훈련장마다에 위훈을 아로새겨온 그였기에 위기일발의 순간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아 혁명동지들을 구원할수 있었다.

—리철민영웅은 어떤 사람이였는가?

이 물음을 안고 영웅의 반신상앞에 선 학생들에게 모교의 스승들은 이렇게 말하군 한다.

그는 남달리 공부를 잘했다고, 동무들을 위하는 마음도 뜨거웠다고.

그래서 위기일발의 순간에 혁명동지들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것이라고.

중구역 리철민고급중학교의 학생들은 자주 영웅의 반신상앞에 서군 한다.

얼마전에도 격식없이 열린 모임에서 3학년 2반의 림범학생은 리철민영웅이 남긴 시의 한 구절을 읊었다.

…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이 땅은
총친 병사인 내가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명령이기 전에 심장으로
이 몸 바쳐 지키고 가꾸어야 할 영원한 나의 초소

그의 뒤를 이어 김강군학생이 동무들앞에 나섰다.

—영웅의 금별메달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조국보위의 길에 청춘의 영예도 행복도 있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동무들, 우리 모두 조국보위초소로 달려가 영웅처럼 생을 값있게 빛내이자.

그의 말에 학생들모두가 화답하였다.

—모교의 다음번 영웅은 내가 되리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존경받는 인민군후방가족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습니다.》

끌끌하게 키운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는것은 이 나라 모든 가정의 자랑스러운 가풍으로 되고있다.

정평군 독산농장 농산제3작업반 허명수동무와 그의 안해 주금옥동무는 아들딸 세자식을 성스러운 조국보위의 길에 내세웠다.

조국이 있고야 가정의 행복도, 너희들의 미래도 있다고 입버릇처럼 외우군 하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자란 맏딸 허광옥과 둘째딸 허광월은 중학교를 졸업하자 주저없이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집안의 막내로 온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막내아들 허남일이도 중학교를 졸업하자 누나들처럼 인민군대가 되였다.

철산군 원세평협동농장 제2작업반장 강영실동무도 아들딸 세자식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후방가족이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사군의 본분을 다하느라 바쁜 속에서도 강영실동무는 늘 자식들에게 선렬들의 피가 스민 이 땅을 목숨바쳐 지켜야 한다고 이르군 하였다. 어머니의 당부대로 아들들인 박국철과 박혁철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집안의 막내인 딸 순임이도 중학교를 졸업하자 인민군대로 탄원하였다.

대흥군 흑수협동농장 리영남동무와 그의 안해 방금숙동무에게도 아들 리일광과 리일명, 딸 리일심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자랑이 있다.

이들부부는 학교선생님들과의 련계밑에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노래도 잘하는 자식들이 자기의 소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모든것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들부부의 소원은 한가정의 울타리안에서만 맴돌지 않았다.

조국방선이 굳건해야 자기의 희망도 활짝 꽃피울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부부는 자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자 차례로 인민군대로 떠나보냈다.

구성시 양하협동농장 제2작업반 김응모, 안명숙부부와 안두남, 로금실부부도 세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후방가족이다.

영농공정마다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할줄 모르며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잘하고있는 김응모동무와 그의 안해 안명숙동무는 세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으며 그들에게 뒤질세라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는 물론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는 안두남동무와 로금실동무도 두 아들과 딸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

한가정의 행복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자식들을 대바르게 키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군대로 내세우는 이런 자랑스러운 인민군후방가족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어 내 조국은 굳건한것이다.

본사기자 김치곤

자랑많은 원군가정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전초선에 선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후방의 인민들은 뜨거운 원군으로 선군의 내 조국을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원군을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적극 도와주는 원군가정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운산군 답상리 김명훈동무의 가정

운산군에 가면 원군을 잘하는 가정으로 널리 알려진 김명훈동무의 가정이 있다.

그의 가정은 아버지때부터 시작하여 30여년세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과 사회주의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심성의로 해오고있다.

《사람은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할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김명훈동무의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다.

나날이 더해만지는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농사일로 바쁜 속에서도 수십년세월 해마다 많은 집짐승들을 길러 초소의 군인들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주는데서 희열을 찾군 하는 아버지의 삶의 지향은 그대로 어린 김명훈동무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게 되였다.

아버지처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한생을 빛내일 일념을 안고 조국보위초소에 선 김명훈동무가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의 부상을 당하고 영예군인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였을 때 그의 마음은 몹시도 피로왔다.

나라에서 조국을 위해 피흘린 영예군인이라고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따뜻한 사랑을 기울일수록 명훈동무의 가슴속에서는 보답의 마음이 더욱 솟구쳐올랐다.

그는 자기 가정의 자랑이며 가풍인 애국의 길, 원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마음을 안고 산세험한 방목장을 오르내리며 해마다 많은 염소들을 길러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불편한 몸으로 일하느라 몸져누울 때도 있었지만 그는 원군의 길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해마다 많은 염소들을 길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고있다.

김명훈동무의 가정에 있는 부피두툼한 원군일지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있다.

《당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원군길은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가야 할 량심과 의리의 길, 신념과 충정의 길이다.》

배천군 읍 김명화동무의 가정

《어머니, 오늘은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찾아가는 날이지요. 나도 함께 갈래요.》

《우리 변웅이가 참 용쿠나.》

원군의 길을 함께 걸으며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성장하는 어린 아들애를 바라보는 김명화녀성의 눈가에는 밝은 빛이 어리여있었다.

김명화동무의 가정이 이렇듯 원군의 길에서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찾으며 한해에도 여러차례 초소의 군인들에게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보내주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무더운 여름철의 어느날 김명화동무는 훈련길을 다그치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비록 그들의 군복은 땀에 젖었어도 얼굴마다에는 성스러운 조국보위의 사명을 다하려는 드높은 열의가 어려있었다. 군인들을 보는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조국보위의 길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인민군대가 있어 우리가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발편잠을 자는것이 아닌가.

문득 그의 눈앞에는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동지적의리심을 알게 해준 잊지 못할 군사복무의 나날이 어제런듯 방불하게 펼쳐졌다.

(내 비록 군복은 벗었어도 마음속의 군복은 영원히 벗지 않고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리라.)

그날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원군길을 걸어갈 그의 결심을 남편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때부터 김명화동무의 가정은 원군의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으며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마음을 썼다.

많은 집짐승도 맡아 기르느라 언제한번 손이 마를새없이 뛰여다니였다.

그러나 자기들의 지성이 담긴 원호물자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며 김명화동무의 가정은 오늘도 원군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건일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고있다.
—신의주우편국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실화 징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왔습니다.》

꾸르릉—

멀리서 천둥소리가 울리고 하늘에는 먹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진인섭은 거친 껍질을 벗겨낸 소나무말뚝에 련거퍼 자귀질을 해대였다. 정신없이 자귀날을 박던 인섭은 그만 《음—》하고 신음소리를 내였다. 자귀날에 왼손을 베였던것이다. 하얀 나무속살에 점점이 피가 찍히였다. 순간 인섭은 목구멍으로 불뭉치가 울컥 치밀어오르는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비구름에 묻힌 능금도쪽을 바라보며 《중대장동지! 꼭 복수하겠습니다.》하고 웨치였다.

주체40(1951)년 4월의 이날 서해바다가에 위치한 월사리의 나지막한 산등성이에는 《중대장 김시영의 묘》라고 쓴 말뚝이 세워지게 되였다.

* *

이해 12월 25일 밤 10시 인민군대 한 구분대가 능금도를 향해 전진하고있었다.

당시 적들은 서해의 여러 섬들에 도사리고있으면서 우리측 해안지대에 수시로 침입하였다. 놈들은 군인들과 인민들을 살해, 랍치하였으며 건물들에 불을 지르고 집짐승들을 끌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해안방어를 맡은 부대들에 투하되는 적항공륙전대와 서해에서 상륙하는 적들을 소멸함으로써 서해안을 방어하고 수도 평양을 튼튼히 보위할데 대한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였다. 하여 진인섭이 속한 부대에서는 서해의 섬들에 있는 놈들의 소굴을 짓뭉개버릴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우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관철하기 위한 전투가 있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인섭은 응당 자기가 그 전투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인섭에게는 능금도에 둥지를 틀고있는 적부대의 김대령이라는 장교놈이 자기가 그처럼 따르던 중대장을 살해한 놈 같았다.

그는 부대지휘관들에게 중대장의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으며 지금은 척후조조장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였던것이다.

금산포에서 출발한 대오는 썰물을 리용하여 능금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날씨는 몹시 맵짰다.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불타는 인섭은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추위는 김시영중대장과 한여름의 무더위속에서 헤쳐가던 남진의 길을 추억하게 하였다.

행군으로 시작되여 행군으로 끝나는것이 전쟁이라고 여겨질만큼 그들은 많이도 걸었다. 그러나 그 수천리길을 추억할 때면 김시영소대장(당시)의 모습이 제일먼저 떠오르군 했다. 신대원들의 발에 물집이 생길세라 죄스럽기만 하였다.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회상에 잠겨있는 인섭의 귀가에 《조장동지, 이것 보십시오.》하는 부분대장 계여제의 다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감탕판에 능금도로 향한 발자국이 나있었다. 물이 고이지 않은것을 보아 썰물을 맞춰 금방 떠난 걸음이 분명하였다. 얼마쯤 나가자 드디여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은밀히 추적하여 생포하고보니 능금도에 인민군대가 공격해온다고 련락을 떠난 적간첩놈이였다. 놈의 입에 자갈을 물리우고 섬에 거의 이르렀을 때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개고가 척후조앞에 펼쳐져있었다.

인섭은 적간첩놈을 개고로 떠밀었으나 놈은 얼음이 덮인 물에 들어설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 속에 벌써 뒤쪽에서 전투원들이 가까와오는 소리가 들리였다.

이때 갑자기 망아지처럼 뻗치고있던 간첩놈이 얼음장을 밟으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놈이 허겁지겁 내짚는 발소리로 하여 주변이 갑자기 소란해지였다. 뒤이어 섬에서 조명탄이 떠오르고 눈먼사격이 시작되였다.

더는 지체할수 없는 위기일발의 시각이였다. 인섭은 《척후조 날 따라 앞으로!》하는 구령과 함께 물속에 먼저 뛰여들었다.

적들의 사격이 척후조쪽으로 집중되였다. 그러나 이런 정황을 예견하여 준비한 방탄솜배낭이 은을 내였다. 전투를 앞두고 대대장이 발기한것이였다. 총탄의 관통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걸솜을 적시여 미리 얼군 방탄솜배낭이였다.

놈들의 총탄이 솜배낭에 푹푹 박히는 소리는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마침내 개고를 돌파한 척후조는 방탄배낭에 의지하여 적진을 향해 대응사격을 들이대였다.

적들은 척후조가 유인사격을 하는줄을 모르고 총탄과 포탄을 마구 날리였다. 이 틈을 리용하여 전우들이 섬에 오를 생각을 하니 인섭을 비롯한 척후조원들에게는 비오듯 쏟아지는 놈들의 총탄이 무섭지 않았다.

유인사격으로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 뒤에 인섭은 《척후조 앞으로!》하고 웨치며 몸을 솟구치였다. 그런데 솜옷이 얼음판에 떡 얼어붙어 앞으로 전진할수 없었다.

인섭은 총탁으로 물우에 낀 얼음을 까며 적진을 향해 방탄솜배낭을 떠밀었다. 다른 동무들도 얼음을 깨치며 그의 뒤를 따라 배밀이를 하였다.

섬에 거의 접근하였을 때 적들의 목선 한척이 앞에 가로놓여있었다. 척후조는 지체없이 배에 올라 수색을 하고는 섬에 올랐다.

때를 같이하여 섬의 좌측과 우측에서 아군의 만세함성이 터져올랐다. 척후조도 이에 뒤질세라 놈들의 지휘부가 자리잡고있는 학교건물로 뛰여들었다.

기관단총몰사격과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섬을 진감하였다.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나오는 학교안에 돌입한 인섭은 방마다에서 얼른거리는 적들을 향해 사격을 들이대였다. 여기저기에서 아군의 총에 맞은 적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밤의 전투는 거의 세시간만에 결속되였다. 전투후 놈들의 소굴에 대한 수색과정에 인섭은 사진 한장을 발견하게 되였다. 중대장의 군복이 찍힌 사진이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것만 같아 인섭은 벽에 걸려있는 놈들의 기발에 기관단총련발사격을 들이대였다.

얼마후 섬에는 고요가 깃들고 물이 있는 동쪽하늘이 불그스레해지였다. 인섭은 중대장이 누워있는 곳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웨치였다.

(중대장동지! 이제는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놈들을 징벌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흐른 후에 인섭은 중대장이 묻힌 곳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중대장의 봉분을 찾을수 없었다. 사람도 산천도 너무도 많이 변하였던것이다.

마을의 한 로인은 인섭에게 산등성이에 묻혀있던 군관의 시신을 전쟁시기에 희생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다른 곳에 안장하였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전화의 그날 복수를 절규하던 산등성이에 오른 인섭의 눈앞에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지였다.

산릉선마다에 빨간 열매들이 주렁진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있었고 중대장의 피가 스민 산기슭에는 아담한 살림집들이 추녀를 맞대고있었다. 복수를 다짐하며 병사들이 떠나던 곳에는 벼바다가 설레이고있었다. 전화의 옛 모습을 찾을 길 없는 산천에 마을의 확성기에서 울리는 노래소리가 메아리치였다.

이제는 옛 전호에 탄피도 삭았으리
고지엔 산딸기가 빨갛게 익었으리
그러나 잊지 마시라 그 열매 드리운 땅에
그 땅에 묻혀있는 탄피를 탄피를
…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쟁로병 진인섭은 《그래, 잊지 말아야지. 오곡백과 주렁진 땅에 스민 전사들의 피를 잊으면 오늘의 행복도 지켜낼수 없는 법이지.》하고 되뇌이며 사과나무사이로 뻗은 길을 따라 걸음을 내짚었다.

본사기자 차수

한 가정에 울린 심장의 목소리

동대원구역 동대원1동 6인민반에서

지난 4월 어느날 인민봉사총국 대동강맥주공급소 일군들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영예군인 양광복동무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집주인들과 마주앉아 집보수문제를 초급당위원회에서 토의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군들이 기술자들과 토의하여 세운 집보수계획에 따라 보수공사가 벌어지였다. 하루일을 마친 종업원들은 동대원구역 동대원1동에 자리잡은 살림집으로 달려와 땀을 바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김성호, 리금철, 리성훈, 한성철, 김철민, 곽철남동무들이 일군들을 찾아왔다.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습니다. 집보수기간이 오래 걸리면 주인들이 불편해하겠는데 말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와닥닥 해제끼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의 심정을 담아 김성호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낮에 밤을 이어 바치는 자기들의 수고는 생각지 않고 오히려 영예군인부부가 불편해할세라 마음쓰는 종업원들,

집보수전투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일군들은 사업의 바쁜 시간을 내여 때없이 양광복동무의 집을 찾아 보수정형을 알아보았다.

《제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잘해봅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양광복동무의 안해 박순녀동무는 눈굽이 젖어들었다. 살림방, 부엌 등 모든것이 다 집주인들의 마음에 꼭 들게 꾸려지고있었다. 그런데도 미흡한것이 있을세라 두번세번 다시 고쳐하는 그들의 진정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수 있으랴.

하지만 그는 자기들을 위하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극진한것인지 다 알지 못하고있었다.

살림집이 완전히 일신된 그날 새 가구들이 연줄연줄 들어섰을 때 가슴이 뭉클하였다.

찬장이며 이불장, 양복장 등 하나하나가 다 새로 꾸려진 집의 크기와 양상에 맞게 주문하여 만든것이였다.

고마와 어쩔줄 몰라하는 영예군인부부에게 일군들은 말하였다.

《조국을 위해 피흘린 영예군인들을 잘 돌보아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입니다.》

영예군인부부와 아들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목메여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예군인가족이 심장으로 터친 목소리,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동지, 충직한 전우가 되여 애국충정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려는 진정의 분출이였다.

본사기자

무자비한 선제타격은 정정당당한 권리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내외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맞춤형억제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것으로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해온 이상 우리 식의 가장 강력한 선제타격이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시각에 무자비하게 개시된다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이 원칙적인 대응립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있으며 우리 인민과 온 겨레에게는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무자비한 선제타격은 북침핵전쟁광신자들에 대한 우리 혁명무력의 정정당당한 최상의 선택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실전에 적용하려고 하는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이 우리의 그 무슨 《핵위협》에 따르는 단계별전략으로서 그 본질이 핵선제타격이라는것은 이미 폭로되였다. 이것을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이번 연습에 정식 적용하겠다는것은 핵전쟁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전쟁은 광고를 하고 시작하는것이 아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실제적인 북침핵선제타격으로 번져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 조선전쟁이후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우리 공화국을 항시적으로 위협해온것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은 치솟은지도 오랬을것이다. 한두해도 아니고 60여년세월 미제와 괴뢰들의 핵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있어서 핵전쟁광신자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이제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핵선제타격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그에 앞선 무자비한 선제타격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옳바른 선택이다.

도발자들은 얻어맞아도 할 소리가 없다. 일단 우리가 때리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구실없이 얻어맞아야 하며 우리가 결심하면 침략의 크고작은 본거지들은 불바다가 되고 재더미가 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대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립장이며 단호한 대답이다.

무자비한 선제타격은 북침핵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을 징벌하기 위한 정의로운 대응방식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총포성없는 대결전의 승리를 안아온 영웅적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만능의 주체전법과 그 어떤 현대전에도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춘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

핵무기는 더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는 핵과 전술로케트를 비롯하여 도발자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무장장비들을 완전무결하게 갖추고있다.

우리는 도발자들과 그 본거지들을 송두리채 불태워버릴 만단의 준비태세에 진입하였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힘,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간직한 강자들만이 가질수 있는 담력이고 배짱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서 한치의 양보도, 순간의 타협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지금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터져나오는 원쑤격멸의 함성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인민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복수심의 분출이며 천만군민의 단호한 징벌선언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북침핵선제타격에 기어이 나서려 하는 조건에서 이제는 어차피 결판을 내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맞춤형억제전략》의 실전적용을 떠드는 전쟁부나비들에게 무자비한 선제타격을 개시할것이라고 선언한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총대로 침략자, 도발자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게 상상조차 할수 없는 멸적의 불벼락을 들씌울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그토록 전쟁불장난에 미쳐돌아치면서도 그것을 《년례적》이며 《방어적》인것이라고 광고하는것은 파렴치한 현실기만이며 저들의 북침핵선제타격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조선반도정세가 오늘과 같이 첨예하고 긴장하지 않았을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것을 《방어》로, 《년례적》인것으로 묘사하는것이야말로 뻔뻔스러운 궤변이며 날강도적인 생억지이다.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미친듯이 몰아오는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길만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하는 길이다.

불을 즐기는 부나비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핵전쟁미치광이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종국적멸망뿐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우리가 일단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처절한 죽음과 비명속에 깨닫지 않으려거든 분별없이 날뛰지 말고 심사숙고하는것이 좋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최 철 순

시대착오적인 《종북》타령

남조선 각계층이 규탄

남조선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5일 괴뢰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종북》타령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얼마전 검찰이 《종북》의 류형을 북과 련관된 사건에서 남조선의 공식립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립장을 보이는 사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남조선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떠들어댄데 대해 폭로하였다.

한 극우익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수 없는 사람들까지 종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소를 자아낸 일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옹호하는 꼴이라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극우익분자들이 마음대로 활개치며 마녀사냥을 해대는것을 원하는것이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였다.

검찰의 론리대로라면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 《종북》에서 례외가 될수 없으며 내란음모사건이 분렬시대의 마지막비극이 아니라 그 시작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개탄하였다.

《종북》소동은 국민을 억압하고 배제하며 필연적으로 사회를 극우익으로 빠지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 《유신》독재가 21세기에 그대로 재현되는셈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지금 남조선이 검찰을 척후병으로 하여 극우익사회로 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 *

남조선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보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통합진보당이 11일 서울고등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란음모사건협의자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리창복은 이날 법원이 내란음모사건협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벌려놓고 지하혁명조직이라는 존재자체가 없으며 내란음모라는것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중형을 선고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변호사 김칠준은 법원이 내란음모협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내란선동협의를 유죄로 판결한것은 론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란음모사건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쎈터 목사 정진우는 오늘 재판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 실태를 보여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갇혀있어야 하는가고 그는 항변하였다.

통합진보당 대표 리정희는 진보정당에 대한 《정부》의 말살공작은 파탄되였다고 언명하였다.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구시대악법 《보안법》에 의해 구속자들이 석방되지 못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앞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내며 《보안법》을 페지시키기 위해 적극 활동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구속자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 그리고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서울고등법원앞에서 구속자들을 석방하라고 웨치며 집회를 가지였다.

【조선중앙통신】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또다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것과 관련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인 대응립장을 내외에 천명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책동은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를 17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선제타격이 조선이 선택한 임의의 시각에 개시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있다.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이 《맞춤형억제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것으로 조선에 선전을 포고해온 이상 조선식의 가장 강력한 앞선 선제타격이 개시된다는것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밝혔다.

조선이 때리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의 크고작은 본거지들은 불바다가 되고 재더미가 되여야 한다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인디아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디안 엑스프레스》, 지 뉴스TV방송, ND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사히신붕》, 프랑스의 AFP통신도 《조선 무자비한 선제타격을 경고》 등의 제목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보도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책동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단죄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맞춤형억제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것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을 포고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통해 가장 강력한 앞선 선제타격이 임의의 시각에 무자비하게 개시된다는것을 천명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경고를 명심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근 70년 강점력사를 한정없이 이어나가기 위한 상전과 주구의 새로운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번 침략전쟁연습을 계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영구강점시도가 명백해지고 괴뢰당국의 친미사대적인 매국배족행위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화국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모든 평화적발기와 제안에 극도로 위험한 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전쟁광란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온 겨레와 함께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전민항쟁,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삼천리조국강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해나섰다고 규탄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 위험천만한 반공화국핵전쟁연습들을 감행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동족대결을 일삼아온것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침략전쟁연습을 계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영구강점책동과 괴뢰당국의 매국배족행위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하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체 동포 녀성들은 정세를 또다시 위기일발의 험악한 전쟁상태에로 몰아가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침략책동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견결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제침략군은 피터지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북침핵전쟁연습을 당장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철수해야 한다.

남조선당국과 호전광들은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온 민족의 념원인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평화통일방안을 기어이 실현하고 통일된 조국강산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꽃피우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다.

팔레스티나와의 련대성 호소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13일 한 외교석상에서 팔레스티나와의 련대성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민을 말살하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들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팔레스티나인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베네수엘라는 자유로운 독립국가창건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유태복고주의정권의 멸망 예고

이란국가복리리사회 비서 모흐센 레자이가 15일 레바논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 총비서 쉐이크 하싼 나스랄라흐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태복고주의정권의 멸망을 예고하였다.

편지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에로 줄달음치고있으며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어린이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하는 유태복고주의정권을 멸망시키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는 항쟁뿐이라고 편지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전염병피해와 그를 막기 위한 노력

- 에스빠냐에서 첫 에볼라환자가 발생하였다. 6일 이 나라 텔레비죤방송은 리베리아에서 돌아온 한 에스빠냐인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전하였다.
- 시에라레온에서 에볼라비루스에 의해 또 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13일 에볼라환자치료에 종사하던 의사가 비루스에 감염되여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 서아프리카나라들에서 에볼라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일현재 기네,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등 나라들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1 06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그리스에서 최근 서부닐비루스감염자가 발생하였다. 13일 정부는 아테네에서 사는 한 로인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이 비루스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뇌염과 기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한다.
- 나이제리아에서 최근 에볼라비루스가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이 나라 보건상은 6일현재 6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으며 그중 1명이 죽고 5명이 입원치료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비루스전파와 관련하여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 까메룬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콜레라가 퍼져 인명피해를 입고있다. 콜레라가 발생한 지난 4월부터 6일현재까지 1 609명의 환자가 등록되였으며 그중 74명이 목숨을 잃었다.
- 아프리카동맹위원회가 최근 대륙에서 전염병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위원회는 우선 에볼라비루스피해가 심한 서아프리카지역에 의료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치료시설들을 보장해주며 감시체계와 위생선전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위원회는 또한 전염병을 미리 막거나 즉시적인 치료대책을 세우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프리카질병통제 및 예방쎈터를 창설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권말살국의 추악한 정체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인권옹호》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권유린왕초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의 더러운 야욕을 채우기 위한 비렬한 술책에 불과하다.

미국이 가자지대에서 살륙과 파괴를 도락으로 삼고있는 이스라엘을 각방으로 지원하면서 팔레스티나인들을 죽음의 참화속에 밀어넣고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가자지대는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으로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의 목숨이 마구 란도질당하는 하나의 인간도살장으로 변하였다.

지난 7월 8일이래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과 포사격만행으로 그곳에서 1 900여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목숨을 잃고 1만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사상자들가운데는 갓난애기와 늙은이 지어 임신부도 있었으며 병원과 학교, 유엔기구의 건물들도 이스라엘군의 공격목표로 되였다.

가자지대에서의 이스라엘의 대량살륙만행과 파괴행위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더우기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살인만행을 비호조장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제사회의 분노를 고조시키고있다.

스위스신문 《트리뷴 드 제네브》 1일부는 미국이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계속하도록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이스라엘에 제공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방성은 이스라엘주둔 미군이 보유하고있는 비상물자들인 무기와 탄약의 무제한한 사용권한을 이스라엘에 주었다.

지금 미국회 하원에서는 이스라엘에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백만US$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려 하고있다.

여론들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거액의 자금을 이스라엘에 대주면서 저들의 중동지배전략실현을 위한 충견으로 길들여왔다는데 대해 주목하고있다.

말레이시아신문 《우뚜산 말레이시아》는 2003년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해마다 30억US$분의 군사적지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면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준 자금이 약 2 100억US$에 달한다고 까밝혔다.

중동평화의 파괴자, 인권말살국으로서의 미국의 추악한 정체가 낱낱이 폭로되였다.

공정한 여론들은 살인마들에게 돈과 무기를 쥐여주며 인간살륙에로 부추기는 미국을 인권유린의 왕초로, 중동평화파괴의 장본인으로 끝없이 질규하고있다.

미국에서 이라크에 대한 공습에 항의하여 시위

미군기지건설반대집회

일본 오끼나와현에서 14일 새로운 미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2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현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용기들을 위한 활주로건설이 강행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고 이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려객기추락사건의 진범인은 누구인가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7월 중순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의 꾸알라 룸뿌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려객기가 우크라이나동부지역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려객기사고로 비행기에 있던 298명의 승조원과 승객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사고는 즉시 세계의 초점으로 되였으며 원인모르게 추락한 비행기사고에 국제사회계는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있다.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왜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분쟁지역에 떨어졌는가.

사건의 진범인은 누구인가.

려객기추락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은 현재 로씨야를 일방으로 하고 우크라이나당국의 역성을 드는 미국과 유럽동맹을 타방으로 하는 장기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곳으로 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로씨야인가 아니면 유럽동맹인가 하는 량자택일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시작된 우크라이나에서의 사회적혼란은 크림공화국의 로씨야련방가입과 동부지역 도네쯔크주와 루간스크주의 독립선포에로까지 이어졌다.

그후 우크라이나는 동부지역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개시하였으며 그것은 류혈적인 충돌로 번져지게 하였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이 우크라이나의 편역을 들면서 로씨야를 압박하고있다. 이런 시기에 말레이시아려객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한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무작정 이 사건을 로씨야에 밀어붙이면서 책임을 따지고들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말레이시아의 신문이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서 일어난 말레이시아항공회사소속 려객기추락사건과 관련한 글을 실었다.

글은 말레이시아려객기가 우크라이나동부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의 《Cy-25》습격기에 의해 격추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졌다고 밝혔다.

군사전문가들이 추락한 려객기의 잔해를 분석한데 의하면 습격기는 먼저 려객기에 공대공미싸일을 발사한 후 기관포련발사격을 가했다고 한다.

추락현장에서 발견된 려객기잔해에는 미싸일에 맞은것으로 보이는 큰 구멍과 기관포탄자리로 보이는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나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말레이시아려객기추락사건과 관련하여 발표한 로씨야측의 자료에 신빙성을 부여해주고있다.

로씨야국방성은 려객기추락당시 려객기주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Cy-25》습격기가 기동했다는 레이다감시자료를 공개하였었다.

로씨야측은 우크라이나당국이 사건발생당일 해당 지역에서 기동한 《Cy-25》습격기부대의 비행일지를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말레이시아신문은 려객기격추사건의 책임을 로씨야와 우크라이나동부지역 민병대에 넘겨씌우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처사는 무근거한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미국은 려객기의 추락원인에 대해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당국에 현장증거물을 감출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주기 위해 허위정보전을 개시하였다고 까밝혔다.

미국은 말레이시아려객기격추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국무장관을 내세워 저들에게 로씨야의 지원을 받고있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 민병대가 이 려객기를 격추시켰다는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있다고 떠들었다.

이에 대해 로씨야국방성이 그 증거자료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사건이 있은지 15일만에야 우크라이나에 한장의 위성사진을 주어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성사진에 찍힌 구름과 그림자의 위치에 근거하여 그것이 사건당일에 찍은것이 아니라 위조된 위성사진이라는것이 확인됨으로써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세계앞에서 톡톡히 망신만 당하게 되였다.

한편 세계여론은 우크라이나정부군이 려객기추락현장에 대한 포격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주목을 돌리고있다.

사건직후 도네쯔크측은 려객기추락현장주변에서 조건부없는 정화를 실시할것을 선포하였다.

뒤이어 우크라이나대통령도 사고현장주변 40㎞지역에서 전투행동을 중지할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려객기추락현장과 그 주변에 대한 우크라이나정부군의 포격은 단 하루도 멎은적이 없었다.

결과 네데를란드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추락현장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네데를란드와 말레이시아정부는 려객기추락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정부가 군사행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정부군의 포격은 계속되였으며 결과 네데를란드정부는 조사성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정부군은 려객기추락현장을 동부지역 민병대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벌리고있다고 한다.

외신들은 려객기추락현장에 대한 조사를 인위적으로 방해하고있는 우크라이나당국과 이를 비호두둔하는 미국의 행위는 려객기격추사건의 진범인으로서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모략일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에 추종하여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을 하다가 헤여나올수 없는 모순속에 빠져들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사실들은 미국과 서방이 이번 말레이시아려객기추락사고를 로씨야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음모의 산물로 리용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희생물이 클수록 침략과 지배의 간섭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미끼로 될수 있다고 속타산하고있다.

여론들은 로씨야를 견제압박하는데서 려객기를 희생물로 삼아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미국의 기도가 폭로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평하고있다.

그도그럴것이 말레이시아운수성은 머지않아 려객기격추사건과 관련한 조사자료를 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말레이시아려객기추락사건을 조작한 목적이 무엇이며 사건의 진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이 자료적으로 명백히 증명될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ㄱ-41130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